

《축 사》
《祝 辞》

이 윤구
李 潤求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前 大韓赤十字社 總裁

祝 辞



李 潤求
前 大韓赤十字社
総裁

心よりこの意義深い「日韓こころの交流」の集まりをお祝いし、このシンポジウムを主催、主管されるユニバーサル財団と共生福祉財団、こころの家族に敬意を表します。

今日、日本と韓国が共に直面している高齢社会の課題を、学会と関連機関が心を合わせて議論する3度目の学術集会です。その貴い意味はいくら強調してもしすぎ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本当にうれしく思います。

今や両国は高齢時代を通りこし、超高齢社会が訪れています。表出している外形的な問題だけでも暗鬱な要因が多くあります。物理的な対応処置を効率的にしていくには、まず、老人福祉の専門家の専門性 (Professionalism) が高揚されねばなりません。莫大な投資と多くの時間が必要となるでしょう。そのためにこの貴重な集まりが、超高齢社会を明るく導いていく原動力を充電する大きな力となることと思います。

この集まりのテーマが「こころの交流」であることに、私は少なからぬ興味を持ちます。高齢者の身体的な衰弱と疾患は、先端科学技術による治療 (Cure) が難しいでしょうが可能です。しかしある意味で、高齢社会のより重大な課題は、孤独に孤立して生きることよりも、絶望と自殺を考えるようになるこころの病かもしれません。この問題には、治療よりも保護 (Care) が必要であるという認識がますます高まっていることは幸いだと思います。

日本と韓国の高齢社会を、画一的に非生産的で費用のかかる社会保護対象とだけ考える認識に、新しい挑戦状を出すような討論となることを期待します。孤独で孤立し、世の中が高齢層を見捨てたという気持ちを持つ高齢者たちが、笑顔の壮年や青少年のさしのべる手を温かく感じて、元気をもらい、生産的で積極的な気持ちになる社会となれば心配はないと思います。

21世紀の初めに人類が向き合う至上の課題は、生命敬畏の人間性と、老若男女、強者と弱者が生きる喜びを分かち合う人類愛の精神回復だと考えます。そうしたところの交流が、この集まりにおいて温かくな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そしてその潮流が日本列島と韓半島に静かに且つ力強く広がっ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失ったところの故郷を取り戻す新しい運動の松明に、火を灯す契機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축 사



이 윤구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충심(衷心)으로 이 뜻 깊은 ‘한일 마음의 교류’ 모임을 축하하고 이 심포지엄을 주최주관하신 유니벨재단과 공생복지재단, ‘마음의 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일본과 한국이 함께 당면하고 있는 고령사회의 과제를 학계와 유관기관들이 마음을 모아 논의하는 세 번째 학술집회의 값진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노령화와 고령시대도 지나고 이제 우리 두 나라에는 벌써 초노령사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표출되고 있는 외형적 문제들만으로 보면 암울한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리적 대응조치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려면 우선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이 고양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투자와 함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귀한 모임이 초노령사회를 밝게 이끌어가는 동력을 충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임의 주제가 ‘마음의 교류’ 라는데 저는 적지 않은 흥미를 느낍니다. 노령자의 신체적 쇠약과 질환은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치료(Cure)가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찌면 노령사회의 보다 크고 깊은 과제는 고독하게 고립하여 살기보다는 절망과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마음의 병인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치료보다 보호(Care)가 해답이라는 인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고령사회를 확일적으로 비생산적이고 고비용이 드는 사회보호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에 새 도전장을 내어놓는 토론이 되시기를 빕니다. 고독하고 고립하여 온 세상이 노령층을 버렸다는 마음이 지배하는 노령자들이 활짝 웃는 얼굴의 장년들과 청소년들의 반가운 손길을 따뜻하게 느끼고 힘을 얻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희생하는 노령인들의 사회라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21 세기 초의 인류가 당면하는 지상과제는 생명경외의 인간성과 노소남녀, 강자와 약자가 삶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사랑의 정신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의 교류가 오늘 이 모임에서 정겨움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전류가 일본열도와 한반도에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회복하는 새 운동의 햇불에 점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